

## 구역모임 안내지

교 재	킹덤스토리 3과 “믿음과 사랑, 하나님 나라 왕의 성품”		
본 문	사무엘상 17장 31-50절	찬 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Share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자의 기도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li> <li>◆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릅니다.</li> </ul>
Read & Talk (말씀나눔)	<p><b>1. 왕의 자격이 없는 사울</b></p> <p>사무엘상 17장을 16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울의 몰락과 영적인 비참함이 기록된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입니다. 이와 동시에 17장 1절은 전쟁의 서막을 알립니다. 그 속에는 사울의 위기가 그려져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은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그려 냅니다.</p> <p>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vs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큰 장수였습니다. 키가 마치 아낙 자손처럼 3m에 육박했고, 놋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군대를 모욕하며 의도적으로 도발합니다. 사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10~11절). 왜냐하면 사울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가지 못했고, 세상 나라 블레셋의 웃음과 조소거리가 됩니다.</p> <p><b>2. 사울보다 왕다운 다윗</b></p> <p>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 앞에 양치기 소년 다윗이 등단합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려고 하니 형 엘리압이 반대 합니다(28절). 엘리압은 아마도 자신의 탐욕이 우선이 되어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전장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 당하자 자신의 불타는 심정을 표현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다투기로 작정하고, 오직 돌 다섯과 막대기, 물매만을 들고 전장에 나아간 것입니다.</p> <p>우리는 영적 전쟁에 서 있으나 나의 유익과 탐욕이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 되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p> <p><b>3.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b></p> <p>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한사코 거절한 뒤 막대기와 돌 다섯, 물매만을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신체적인 능력과 같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p>

	<p>‘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17:45)’</p> <p>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모실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p>
Application (적용)	<p>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달려가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p>
Pray (기도)	<p>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교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열정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p>
Blessing (축복)	<p>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p>
주기도문	<p>(인도자) 주기도문으로 구역 모임을 마치겠습니다.</p>